

《往五天竺國傳》의 중간언어 연구*

박 용 진**

<목 차>

1. 서론
2. 女人在髮(113행)
3. 仕宦之類 中天不殊(24-25행)
4. 極荒林木(7행), 極惡風俗(179행)
5. 결론

1. 서론

高田時雄(1992)은 <慧超『往五天竺國傳』의 言語와 敦煌寫本의 性格>에서 《往五天竺國傳》의 언어를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비문법(非文法)적인 문구를 소개하였는데, 어순의 순서가 바뀐 '極荒林木(7행), 極惡風俗(179행), 仕宦之類, 中天不殊(24-25행), 林木荒多(44-45행), 恒河在北岸有三大塔(42행)'과 '在'(在髮, 在鬚, 在頭)의 사용 오류를 고찰하였다.

우리는 이 글에서 《往五天竺國傳》의 언어를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高田時雄(1992)이 제기한 5개의 비문법적인 문구 중에서 '仕宦之類, 中天不殊(24-25행)', '極惡風俗(179행), 極荒林木(7행)'을 재분석하고자 한다.¹⁾ 둘째, 高田時雄(1992)는 그의 연구에서 문구의 오류는 지적하였지만,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9.

** 朴庸鎮, 全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shanejin@jbnu.ac.kr).

문구의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어 교육이론 가운데 ‘중간언어’(Interlanguage)’이론을 적용하여, 《往五天竺國傳》의 비문법(非文法)적인 오류가 만들어진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²⁾

2. 女人在髮(113행)

‘女人在髮(113행)에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 ‘在’이다. 오류발생의 원인분석을 통해, 동사 ‘在’가 사용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往五天竺國傳》에서 ‘女人在髮’는 113행 · 160행 · 170행 · 189행에서 4번 출현하였다.

- (1) 頭上纏疊布一條。女人有髮。貧多富少。(113행)
- (2) 男人並剪鬚髮。女人有髮。土地足山。(160-161행)
- (3) 女人亦著寬衫。男人剪髮在鬚。女人有髮。(170행)
- (4) 此國男人剪鬚髮。女人有髮。(188-189행)

‘女人在髮’는 ‘女人有髮’로 표현되어야 옳은 문장이다. 우리는 이런 오류가 발생한 이유를, 최초의 모국어인 한국어와 목표언어인 중국어 사이에서 발생한 중간언어 현상으로 판단하였다. 중국어의 ‘有’와 ‘在’는 모두 한국어에서 ‘있다’와 대응을 이루는 동사이다.

1) ‘恒河在北岸有三大塔(42행)’은 박용진(2016)에서 토론하였고, ‘林木荒多(44-45행)’은 박용진 · 박병선 · 서진현(2017)에서 토론하였다.

2) 중간언어 현상이란 Selinker(1972)가 제시한 이론으로 제2언어 학습자 또는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학습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언어체계로서, 숙달도가 동일한 단계의 학습자에서 동일한 언어체계가 보이며, 중간언어에 작용하는 주요 과정을 (1) 언어전이(L1-transfer), (2) 목표언어 패턴의 과도일반화(overgeneralization of L2 language patterns), (3) 이전의 학습 전략(previous learning strategies), (4) 제2언어 습득전략(strategies of L2 acquisition), (5) 제2언어 의사소통전략(L2 communication strategies)으로 제안하였다.

(1) 중국어 ‘有’는 동사용법으로 사용되며, ‘가지다, 있다’의 소유의미를 갖는다. 이후 ‘존재하다, 획득하다, 점유하다, 발생하다’ 등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2) 중국어 ‘在’는 동사용법으로 사용되며, ‘존재하다, 생존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이후 ‘...에 거주하다, ...에 처하다, ...에 남아있다, ...에 속하다’ 등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또한 장소·시간·범위·위치 등을 나타내는 어휘와 함께 ‘~에 있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는 ‘女人在髮’의 문장오류가 발생한 이유를 Selinker(1972)가 제안한 ‘중간언어의 5개의 주요과정’ 가운데, ‘부정적 언어전이’와 ‘목표언어 패턴의 과도일반화’에서 연유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女人在髮’은 최초의 모국어인 한국어에서 하나의 문법항목으로 표현되는 ‘있다’를 이와 대비하는 두 개의 중국어 문법항목 ‘有’와 ‘在’를 과도하게 일반화 시키면서 나타난 중간언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는 한 개의 문법항목으로 사용되는 어휘가 목표언어(중국어)에서 두 개의 문법항목으로 분리되어 표현되는 것으로, 모국어인 한국어가 목표언어인 중국어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정적 전이이다.

대조분석가설을 이용한 Prator(1967)의 난이도등급(Hierarchy of Difficulty) 가설을 적용하여 ‘女人在髮’의 ‘在’를 분석해 보면, Level 5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evel 5’는 L1의 하나의 요소가 L2에서는 여러 개로 분리(Split)되는 단계³⁾를 가리킨다. 즉 L1언어 모국어 화자가 목표언어인 L2언어를 학습할 때, 가장 높은 난이도를 느끼는 문법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Prator의 난이도등급 가설은 Brown, H. D.(1980: 152-154)의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에 소개되었다. Brown의 참고문헌에는 Prator의 난이도등급 가설의 자료를 ‘Prator, C.(1967). Hierarchy of Difficulty. Unpublished classroom l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Brown, H. D.(1980)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Prator(1967)는 난이도등급(Hierarchy of Difficulty)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Level 0’은 L1과 L2의 차이가 없음.
- ‘Level 1’은 L1의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가 L2에서 하나로 융합/병합됨.
- ‘Level 2’는 L1에 있는 요소가 L2에는 없는 것으로 구별이 부족하거나 과소 구별됨.
- ‘Level 3’은 L1의 요소가 L2에서는 새로운 형태나 새로운 분포로 나타남.
- ‘Level 4’는 L1에 없는 요소가 L2에는 있는 것으로 과잉 구별 혹은 과대 구별됨.
- ‘Level 5’는 L1의 하나의 요소가 L2에서는 여러 개로 분리됨.

3. 仕宦之類, 中天不殊(24-25행)

《왕오천축국전》에서 ‘不殊’로 이루어진 구문은 모두 5차례 출현하였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 (1) 將賣人罪與殺人罪不殊(3행)
- (2) 仕宦之類, 中天不殊(24-25행)
- (3) 人風衣著言音。與中天不殊。(67-68행)
- (4) 衣著與中天不殊。(89행)
- (5) 學識人風。不殊華夏。(222행)

高田時雄(1992: 205)은 ‘仕宦之類, 中天不殊’(24-25행) 구문이 비문법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위의 예문들을 근거로 ‘仕宦之類, 中天不殊’는 예문(1), (3), (4)의 문형과 같이 ‘仕宦之類, 與中天不殊’, 혹은 예문(5)의 문형과 같이 ‘仕宦之類, 不殊中天’이 되어야 ‘올바른 어순’을 가진 문장이 된다고 서술하였다.

우리는 웹사이트 國學大師(<http://www.guoxuedashi.com>)에서, ‘不殊’로 검색한 예문분석을 통해, 그 문형을 정리·분석하였다. ‘不殊’로 검색된 예문은 모두 8,358개 항목이다.⁴⁾ 그 가운데 佛部에 속하는 예문을 분석대상 및 연구범위로 선정하였다.

‘不殊’가 사용된 구문을 문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NP)+(Conj與)+NP+不殊於+NP

(1) NP+不殊於+NP

www.kci.go.kr

4) 史部 1,277개, 子部 649개, 集部 1,059개, 詩部 393개, 儒部 379개, 易部 70개, 藝部 48개, 醫部 179개, 叢部 252개, 道部 118개, 佛部 417개, 《四庫全書》 3,517개이다.

(2) NP+(Conj與)+NP+不殊於+NP

2) NP+不殊

(1) NP+不殊

(2) NP+(Conj與)+NP+不殊

(3) NP+(Conj與)+NP, NP+不殊

3) (NP)+PP與+NP+不殊

4) NP+不殊+NP

(1) NP+不殊+NP

(2) NP+(Conj與)+NP+不殊+NP

5) 如+NP+不殊

6) 어휘화 표현

위 6종의 문형에 해당하는 예문과 함께, 그 구체적인 특징 및 내용을 살펴보고
도록 하자.

1) (NP)+(Conj與)+NP+不殊於+NP

이 문형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NP+不殊於+NP'와 'NP+(Conj
與)+NP+不殊於+NP'이다. 이 문형은 '不殊'의 뒤에 '於'가 사용되었다. 따라
서 '與'가 명사구와 명사구의 병렬접속사로 사용된 문형(2)의 'NP1+(Conj
與)+NP2'는 병렬접속사 '與'의 생략이 가능하다.

(1) NP+不殊於+NP

以今等者。義勢不殊於前。《肇論新疏游刃》

오늘날 같은 것은 의세가 예전과 다르지 않다.

(2) NP+(Conj與)+NP+不殊於+NP

照信不殊於智故。《三聖圓融觀門》

‘조’와 ‘신’은 ‘지’와 다르지 않은 까닭이다.

2) NP+不殊

이 문형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NP+不殊’, ‘NP+(Conj與)+NP+不殊’, ‘NP+(Conj與)+NP, NP+不殊’이다. 이 문형은 ‘與’가 명사구와 명사구의 병렬접속사로 사용된 문형(2)의 ‘NP+(Conj與)+NP’와 같은 경우, 병렬접속사 ‘與’의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문형(3)의 ‘NP1+(Conj與)+NP2, NP3(1+2)+不殊’ 역시 병렬접속사 ‘與’의 생략이 가능하고, NP3(1+2)은 ‘NP1’과 ‘NP2’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用兵御將其道不殊.’의 ‘其道’는 ‘用兵’과 ‘御將’을 가리킨다.

(1) NP+不殊

龍女持來更不殊。《建中靖國續燈錄》

용녀가 지켜온 것은 다시 다르지 않다.

眞幽之理竟不殊。《宗統編年》

참되고 심원한 이치는 결국 다르지 않다.

雖少前部。大意不殊。《華嚴經談玄抉擇》

비록 앞부분이 부족하긴 하나 대의는 다르지 않다.

又復現起應下。義亦不殊。《四教儀注匯補輔宏記》

다시 드러나 일어서서 아래에 호응하니, 의리가 또한 다르지 않다.

名雖有二。體本不殊。《禪宗直指》

이름이 둘이 있다하더라도 본체는 다르지 않다.

同異如何。答四數不殊。《釋門歸敬儀護法記》

차이점이 어떠한가? 답하기를, 앞의 네 종이 다르지 않다.

眞俗雖異。妙旨不殊。《永嘉禪宗集注》

불법과 세법은 비록 다르지만 현묘한 뜻은 다르지 않다.

披毛戴角。而本性不殊。《觀心玄樞》

털을 덮고 뿔을 쓰고 있지만, 본성은 다르지 않다.

眞妄須知性不殊。《証道歌頌》

진심과 망심은 모름지기 불성이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也共當時道不殊。《慧林宗本禪師別錄》

또한 모든 시대에 맞는 도리는 다르다.

雖立名差別。而究理不殊。《入定不定印經》⁵⁾

비록 이름을 세우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이치를 탐구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名義雖異。體性不殊。《大乘義章》

이름과 내포된 의리는 다르지만 체성은 다르지 않다.

義雖不殊。就染淨位而恒不一切故。《大乘法界無差別論疏并序》

의리가 다르지 않더라도 청정한 지위를 물들이면 늘 체성이 전체가 되

5) '究理不殊'에서 '究理'는 '술어+목적어'로 이루어진 명사구이다.

지 않는 까닭이다.

雖少不等大體不殊。《法華文句記》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큰 본체는 다르지 않다.

初千年爲正法者。謂會正成聖。機悟不殊故。《釋迦如來行迹頌》

처음 천년을 정법으로 삼은 것은 이른바 정법을 모아 성현이 되는 것이니, 깨달음이 다르지 않은 까닭이다.

一體者。眞如平等故。一味者。解脫不殊故。《華嚴經疏注》

일체인 것은 평등무애한 진리인 까닭이요, (부처님 교리가) 하나의 맛인 것은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 다름이 없는 까닭이다.

(2) NP1 + (Conj與) + NP2 + 不殊

莊嚴一相不殊。《金剛經新異錄》

‘장엄’과 ‘하나의 상(평등무차별한 진여)’는 다르지 않다.

雖不失本位。而起滅何常。既動靜不殊。《注肇論疏》

근본자리를 잃지 않는다 해도 일어남과 멸함이 어찌 영원하겠는가. 이 미 움직임과 고요함은 다르지 않다.

以喩法界。指點雖異。空月不殊。《三千有門頌略解》

이로써 법계를 비유하자면, 가리키는 것은 다르지만 ‘一空’과 ‘一月’은 다르지 않다.

以由體用不殊。《三時系念儀范》

체와 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因果雖異。理智不殊。《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인과 연은 비록 다르지만, 이와 지는 다르지 않다.

(3) NP1+(Conj與)+NP2, NP3(1+2)+不殊

梵語唐言義不殊。《無異元來禪師廣錄》
범어와 당나라 말은 뜻이 다르지 않다.

用兵御將其道不殊。《隆興編年通論》
병사를 쓰는 것과 장수를 부리는 것은 그 방법이 다르지 않다.

曰破沙盆，曰漏燈盞。兩段不殊。《北澗居簡禪師語錄》
깨진 항아리와 금이 간 등잔은 둘이 다르지 않다.

周孔救弊。佛教明本。共爲首尾。其致不殊。《佛法金湯編》
공자는 폐단을 구제하였고, 불교는 근본을 밝혀 함께 머리와 꼬리가 되었으니, 그 이치가 다르지 않다.

3) (NP)+PP與+NP+不殊

이 문형은 '與'의 용법에 주의해야 한다. 이 문형에서의 '與'는 앞의 문형에서와 같이 병렬접속사의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전치사 용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전치사 용법으로 사용된 '與'는 생략할 수 없다.

與佛經所說不殊。《金剛經新異錄》
불경에서 말한 바와 다르지 않다.

與人間不殊。《金剛經靈驗傳》

인간세상과 다르지 않다.

所說與佛經不殊。《冥報記輯書》

말한 바가 불경과 다르지 않다.

與俗不殊。《禪苑蒙求拾遺》

범속함과 다르지 않다.

則釋迦之與堯孔歸致不殊。斷可知矣。《隆興編年通論》

즉 석가는 요임금 그리고 공자와 귀의처(이치)가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忽見山川境物。與人世不殊。《祖庭事苑》

홀연 산천의 경물을 바라보노라니 인간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影與妄身不殊。《雪峰義存禪師語錄》

그림자는 망령된 마음(몸)과 다르지 않다.

良以別生與本部不殊。《衆經目錄》

참으로 별도로 만든 것이 본 책과 다르지 않다.

故知三千同在心地。與佛心地三千不殊。《十不二門》

그러므로 삼천조가 마음에 함께 있으니, 불심 삼천과 다르지 않음을 알겠다.

皆云我等佛所亦說此法。與此不殊。《華嚴經旨歸》

우리의 부처의 처소에서 또한 이법을 설한다 함이니, (이치가) 이와 다르지 않다.

雖行果與智果不殊。然約法辨位。《大方廣佛華嚴經論》

비록 행업으로 얻은 결과는 수행으로 깨달은 부처의 지혜와 다르지 않지만, 약법이 지위를 변별한다.

佛變五百羅漢與佛不殊。《法華文句記》

佛身을 오백나한으로 만든 것은 부처와 다르지 않다.

亦與三藏法性不殊。《法華文句記》

또한 삼장의 법성과 다르지 않다.

智體既妙湛然常寂與境不殊。《涅槃經游意》

지체(수행으로 깨달은 부처의 지혜)는 이미 현묘하여 맑게 늘 고요하니, 고요함은 경계와 다르지 않다.

卽是戒體。與今善種不殊。《芝園遺編》

곧 계체(잘못을 경계하는 본체)이니, 지금의 뛰어난 종자(善巧한 교화)와 다르지 않다.

與阿彌陀佛國極樂世界不殊。《新修科分六學僧傳》

아미타불국의 극락세계와 다르지 않다.

4) NP+不殊+NP

이 문형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NP+不殊+NP', 'NP+(Conj與)+NP+不殊+NP'이다. 이 문형은 앞서 소개한 'NP+不殊'와 '(NP)+PP與+NP+不殊'

문형과 달리, 술어로 사용된 동사구 '不殊' 뒤에 'NP'가 위치한다.

(1) NP+不殊+NP

七業二身不殊此佛。《華嚴綱》

'칠업'과 '이신'(生身과 佛身)은 부처와 다르지 않다.

其猶鳥足下空不異太空。大海一滴不殊多水。《華嚴經行願品疏》

새의 발아래 공간은 태공(하늘)과 다름없고, 마닷물 한 방울은 수많은 물과 다르지 않다.

悟後本自圓融。一念本不殊長劫。《徹悟禪師語錄》

깨달음은 본디 절로 원융(평등무애)하고, 하나의 사물을 생각하는 짧은 시간은 만겁의 시간과 다르지 않다.(깨달은 후에는 본래 원융하다. 한 생각은 보래 긴 겁의 시간과 다르지 않다.)

第八依根不殊第六。《大乘法苑義林章補闕》

제 팔이 근본에 의지함은 제 육과 같다.

浩露初殘花影空。山水不殊前代色。《紫柏尊者全集》

질은 이슬이 막 쇠잔해지자 꽃그림자가 사라졌거늘, 산수는 이전의 색과 다르지 않네.

祖師所著。亦不殊此。《佛制比丘六物圖》

조사부님께서 지으신 것은 또한 이것과 다르지 않다.

父父子子。更相屠儻。不殊犬豕之死。《佛祖歷代通載》

아비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거늘 서로를 죽이니 (이는) 개 돼지를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理不殊途。《華嚴經義海百門》

이치는 길과 다르지 않다.

義不殊總。《大方廣佛華嚴經疏》

의리는 전체와 다르지 않다.

尋經意則眞僞不殊心。《肇論疏》

경의를 찾으면 마음의 진위가 불심과 다르지 않다.

內愚不殊疇昔。《眞言要決》

안으로의 어리석음이 예전과 다르지 않다.

出觀猶見不殊凡俗。《維摩經略疏垂裕記》

법도를 버리는 것은 범속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蜜分衆口不殊甘。《續指月錄》

꿀을 못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도 단맛을 느끼는 것(맛이 단 것은)과 다르지 않다.

(2) NP+(Conj與)+NP+不殊+NP

且如炭火吞食。口滄吞食。暢悅無歎。喫火食炭。不殊吞食。《西方要決科注》

또 숯불을 삼키는 것과 같다. 입으로 먹고 삼키는 것은) 기뻐 탄식이

없으니 불을 맛보고 숯을 먹는 것이 삼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夫浮生聚散。不殊漚花。《紫柏尊者全集》

덧없는 인생의 만남과 이별은 물에 떨어진 꽃과 다르지 않다.

5) 如+NP+不殊

이 구문은 '如+NP+不殊'의 문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如淤泥不殊。《初學記》

마치 진흙 같아 다르지 않다.

6) 어휘화 표현

이 구문에서 '殊勝'는 어휘화 되었다.

無不殊勝。《五燈全書》

가장 훌륭한 진리가 아닌 것이 없다.

이상에서 '不殊'가 포함된 문장의 예문과 그 문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仕宦之類, 中天不殊'와 같은 'NP+不殊' 문형이 비교적 상용되는 문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仕宦之類, 中天不殊'(24-25행)는 비문법적 표현이 아닌 문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⁶⁾

6) 우리의 견해로 보면, 'NP+不殊+NP' 문형이 다른 문형보다 더 비문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동사구 '不殊'의 '殊'는 자동사이며, 때문에 '殊'의 의미의 비교대상은 'NP+(Conj與)+NP+不殊於+NP' 문형과 같은 전치사 '於'와 '(NP주어)+PP與+NP+不殊'과 같은 전치사 '與'가 이끌게 된다. 그런데 'NP+不殊+NP' 문형에서는 비교대상이 동사구 '不殊'의 목적어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차후에 더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4. 極惡風俗(179행), 極荒林木(7행)

‘極惡風俗’(179행)와 ‘極荒林木’(7행)에서 ‘極’은 부사어이고, ‘惡, 荒’은 형용사술어이다. 따라서 형용사 ‘惡, 荒’이 술어로 사용될 때 ‘林木’ 또는 ‘風俗’과 같은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高田時雄(1992:205)은 이것을 근거로 ‘極荒林木’(7행), ‘極惡風俗’(179행)은 오류문장이고, ‘風俗極惡’과 ‘林木極荒’은 옳은 문장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장의 문법구조를 재분석하여, 어떠한 이유로 문장의 어순에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極惡風俗(179행)

먼저 ‘極惡’을 살펴보면, 國學大師(<http://www.guoxuedashi.com>)에서 ‘極惡’로 검색된 예문은 모두 666개 항목이다. 이들 예문의 대표문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NP)+極+惡

이 문형은 NP가 주어, ‘極’이 부사어, ‘惡’이 술어가 되는 구조이다. ‘NP’는 생략할 수 있다.

聲色極惡, 甚相譴責。《古小說鉤沈》

음성과 낮빛이 몹시 악독하여, 심히 서로를 질책하였다.

且水土極惡, 外人輕入。《國朝典故》

더욱이 기후풍토가 매우 열악하여 외부인의 침입이 용이하다.

莊躄極惡而黃髮。《抱朴子內篇》

장교는 극도로 악랄하였지만 황발이 되도록 장수를 누렸다.

我生處極惡。《新修科分六學僧傳》

내가 생겨날 곳은 '극악'이다.

非有極惡，又可棄之乎？《續資治通鑒長編》

극도로 악하지 않았다면 또한 버림받았겠는가?

雖桀紂之爲窮凶極惡，也知此事是惡。《朱子語類》

결·주의 행위가 극도로 흉악하더라도, 이 일이 악함을 알 것이다.

此牛極惡，人不得近。《釋迦如來應化錄》

이 소는 몹시 흉포하여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다.

至於極惡。則阿鼻地獄。《性善惡論》

'극악'에 이르면, 영원히 고통 받는 아비지옥이다.

(2) 極惡+NP

이 문형은 '極惡'가 관형어로 사용되어, 뒤의 NP를 수식하는 구조이다.

① 極惡(관형어)+之+NP

雖窮凶極惡之人，尙垂矜貸。《國朝典故》

극도로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관용을 베푀다.

② 極惡(관형어)+NP

則極惡者先誅。《皇明經世文編》

극도로 악한 자는 먼저 주살한다.

極惡愚人能念佛。《淨土隨學》

극도로 흉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염불을 능히 잘한다면

墮極惡道。《角虎集》

극악의 도에 떨어진다.

造極惡業。《淨土必求》

‘극악’의 업을 만든다.

(3) 極+惡+NP

이 문형에서 ‘極’과 ‘惡’은 한 문장 안에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極’은 부사로 사용되고, ‘惡’은 뒤의 NP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조이다.

無極妄語、無極惡口。《太上中道妙法蓮花經》

끝없이 망령된 말, 끝없이 악랄한 말

(4) 極惡 : 더할 수 없이 흉악하다. 극악, 극악/악덕한 자. 어휘화

이 문형은 ‘極’과 ‘惡’이 문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성분으로 분석하지 않고, 이미 굳어진 어휘로 분석하는 것이 옳겠다.

後日逐之，以爲天下之極惡。《續資治通鑒長編》

훗날 그를 쫓아내고 천하의 극악한 자라 여기셨습니다.

極惡窮兇。《唐會要》

몹시 흉악하다.

(5) 極+惡+NP

이 문형은 부사어 ‘極’과 술어 ‘惡’ 뒤에 목적어 NP가 위치하는 구조이다.

伯恭極惡之。《朱子語類》

백공은 몹시 싫어하였다.

우리가 검색한 666개의 예문 가운데, 유일하게 ‘伯恭極惡之.’의 구문만 ‘極(부사어)+惡(술어)+NP(목적어)’의 문형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목적어(NP)를 가지는 ‘惡’을 형용사가 아닌 동사 ‘惡(wù)’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의 ‘惡(wù)’는 ‘싫어하다/진저리를 치다/미워하다/증오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極(부사어)+惡(술어)+NP’ 문형은 문법에 합당하다.

위의 문형을 종합해보면, 5가지 문형 중에서 ‘極惡風俗’ 어순이 문법에 합당한 문형은 ‘極惡(관형어)+NP’구조뿐이다. 그렇다면, 《往五天竺國傳》에서 ‘極惡風俗’가 ‘極惡(관형어)+NP’ 구조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자. 《往五天竺國傳》에서 ‘極惡風俗’의 전후 문장은 다음과 같다.

此等胡國。並剪鬚髮。愛著白毳帽子。極惡風俗。婚姻交雜。納母及姊妹爲妻。波斯國亦納母爲妻。其吐火羅國。乃至罽賓國。犯引國。謝颺國等。兄弟十人五人三人兩人。共娶一妻。不許各娶一婦。恐破家計。(이 호국들에서는 수염과 머리카락을 자르고, 하얀색 가죽 모자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 지극히 악한 풍습이 있는데, 혼인을 뒤섞어서 한다. 어머니와 자매를 받아들여 아내로 삼기도 한다. 파사국 역시 어머니를 받아들여 처로 삼는다. 이 토화라국과 계빈국, 범인국, 사울국에 이르기 까지, 형제 열 명이나, 다섯 명이나, 세 명이나, 두 명이나, 합쳐 한 명의 아내를 취한다. 각자가 한 명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집안 살림이 파탄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이다.

‘極惡風俗’의 문맥흐름에 따라,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有’가 첨가하여 ‘有極惡風俗’가 되면,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가설이다. 그렇다면 《往五天竺國傳》에서 술어 ‘有’가 생략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往五天竺國傳》에서 술어가 생략된 예는 아래의 경우이다.

名: (名)伊羅鉢底水(20행)

著: 貧者(著)半片。(31행)

爲: 屋皆(爲)平頭(36행)

爲: 並皆(爲)草屋。似於漢屋兩下作也。(37행)

制: 取乳(制)酪蘇也。(40행)

在: 一(在)舍衛國給孤園中。(42행)

在: 二(在)毗耶離城菴羅園中。(42행)

在: 三(在)迦毗耶羅國。(43행)

是: 四(是)三道寶階塔。(45행)

爲: 四面方圓(爲)三百餘步。(54행)

隨身: 又五天法, 出外去者不將(隨身)糧食。(64행)

問: 不(問)王也(99행)

是: 王及兵馬(是)突厥。(141-142행)

우리는 위의 13개의 구문에서 술어가 생략되었다고 분석하였다.⁷⁾ 이 예문들 가운데 술어 ‘有’의 생략은 찾아볼 수 없다. 술어 ‘有’가 생략된 경우는 《往五天竺國傳》에 없다. 따라서 이 추측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極惡風俗’은 호국 풍습을 서술하기 위한 전제이며, 그 예로 혼인풍습을 서술한 것이라는 가정이다. 다시 말해, ‘극악한 풍속으로는 혼인이 교잡하다. 어머니와 자매를 받아들여 아내로 삼기도 한다.’로 이어진다면, ‘極惡風俗’을 문법적인 구문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설은 성립될 수 있다.

7) 괄호 안의 글자가 생략된 술어이며, 술어의 위치이다.

2) 極荒林木(7행)

‘極荒’을 살펴보면, 國學大師(<http://www.guoxuedashi.com>)에서 ‘極荒’로 검색된 예문은 모두 47개 항목이며, 대표 문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極 + 荒謬 · 荒誕 · 荒遠 · 荒險

許多極荒謬的書。《論衡校釋》

수많은 몹시 황당한 글

極荒誕不經。《莊子集解》

지나치게 터무니가 없어 이치에 맞지 않는다.

海外經、山海經、漢武帝內傳等書，極荒誕不經。《莊子集解內篇補正》
해외경, 산해경, 한무제 내전 등의 글은 매우 황당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다.

窮髮，言極荒遠之地也。《莊子集釋》

불모지인 궁발은 매우 황량하고 먼 곳을 말한다.

統計二百里有奇，地極荒險。《臺灣文獻叢刊195·福建通志列傳選》

이백 리 남짓 하는 곳을 따져보면, 땅이 매우 황량하고 험하다.

위의 예문에서 사용한 ‘極’과 ‘荒’은 한 문장 안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다. ‘極’은 부사로 사용되고, ‘荒’은 이음질 단어 ‘荒謬 · 荒誕 · 荒遠 · 荒險’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極荒林木’은 다소 특수한 구문이라 할 수 있다. (1)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경우 ‘荒’은 다른 형태소와 함께 단어를 구성

하는데, ‘極荒林木’에서 ‘極荒’은 단독으로 사용되었다. (2) 위의 예문에서 살펴 보았듯이, 술어 ‘荒’은 뒤에 NP를 가지지 않는다. ‘荒謬’·‘荒遠’과 같이 관형어로 사용되거나, ‘荒誕’·‘荒險’과 같이 자동사술어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極荒林木’와 같은 어순은 매우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往五天竺國傳》의 ‘極荒林木’의 앞 뒤 문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此塔西有一河。伊羅鉢底水。南流二千里外。方入恒河。彼塔四絕。無人住也。極荒林木。往彼禮拜者被犀牛大虫所損也。此塔東南卅里。有一寺。名娑般檀寺。(이 탑 서쪽에 강이 하나 있는데, 아이라발저 강이라 부른다. 남쪽으로 2,000리 밖으로 흐르는데, 바야흐로 항하로 흘러간다. 그 탑은 사면이 다른 마을과 왕래가 끊겨서, 사람이 살지 않으며, 산림과 나무들이 극히 황폐하였다.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자는 코뿔소와 호랑이의 해를 입기도 한다. 이 탑 동남쪽 30리에 절이 하나 있는데, 사반단사(娑般檀寺)라고 부른다.

이 문단은 구시나국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極荒林木’의 뒤 문장은 구시나국의 탑 주변의 환경을 서술한 것이다. ‘極荒林木’의 앞, 뒤 문장을 함께 살펴보자.

彼塔四絕。無人住也。

極荒林木。往彼禮拜者被犀牛大虫所損也。

‘彼塔四絕。無人住也.’와 ‘極荒林木。往彼禮拜者被犀牛大虫所損也.’가 대구를 이룬다고 해도, ‘彼塔四絕’와 ‘極荒林木’은 의미나 문장성분이 대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極荒林木’의 어순은 비문법적인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위 분석에 근거해 볼 때, ‘極惡風俗’과 ‘極荒林木’은 高田時雄(1992:205)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오류문장으로 분석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極惡風俗’와 ‘極荒林木’의 문법구조에 대해서, 한 가지 분석을 더 진행하고자 한다. ‘極惡風俗’과 ‘極荒林木’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장구조는 두 구문 모두 형용사술어를 가지고 있고, 이 형용사술어는 모두 명사구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往五天竺國傳》에서 사용된

형용사술어의 용례를 살펴봄으로써, ‘極惡風俗’와 ‘極荒林木’의 문법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 | | |
|------------------------|-----------------------------|--------------|
| 地皆平。(2행) | 其城荒廢(4행) | 當此日之發心非一(6행) |
| 此國亦廢(10행) | 彼幢極麤(12행) | 非常歡喜(18행) |
| 此中天王境界極寬(21행) | 五天相似(24행) | 土地甚暖(27행) |
| 百卉恒靑(27행) | 彼土百姓貧多富少(30행) | |
| 羊馬全少(39행) | 土地人善(40행) ⁸⁾ | 其寺荒廢(43행) |
| 彼城已廢(44행) | 林木荒多(45행) | |
| 衣着飲食人風與中天相似(50행) | | 唯言音稍別(50행) |
| 土地熱於中天(51행) | 元不減少(55행) | 然今此寺廢(56행) |
| 稻縈全少(60행) | 土地甚寬(62행) | 爲國狹小(66행) |
| 兵馬不多(67행) | 土地稍冷於中天等也(68행) | |
| 東近雪山(70행) | 衣著共北天相似(71행) | 言音卽別(72행) |
| 土地極寒也(72행) | 言音稍別, 大分相似(72행) | |
| 衣著人風土地所出節氣寒暖與北天相似(73행) | 言音稍別(75행) | |
| 此國稍大(87행) | 道路險惡(88행) | 人民極衆(88행) |
| 貧多富少(88행) | 王及首領諸富有者衣著與中天不殊(89행) | |
| 土地極寒(90행) | 百卉亘靑(91행) | 葉彫(91행) |
| 冬草悉枯(91행) | 川谷狹小(91행) | 布施自由(99행) |
| 衣著言音人風並別(103행) | 地狹小(104행) | 山川極險(104행) |
| 處所與突厥相似(106행) | 土地極寒(108행) | 人民極黑(110행) |
| 白者全希(110행) | 言音與諸國不同(110행) ⁹⁾ | |
| 衣着人風飲食言音與大勃律相似(112행) | 貧多富少(113행) | |

8) 國人多善唱歌(62)의 善은 ‘...을 잘하다’의 의미이다.

9) 不同已前諸國(90행), 此王不同餘已北突厥也(127행), 當土言音不同餘國(155행), 不同餘國(164행), 言音不同諸國(177행), 不同餘國(184행), 不同餘國(206행), 不同諸國(206행)의 ‘同은 ‘...과 같다’의 의미이다.

| | | |
|-----------------------|----------------------|-------------------|
| 山川狹小(113행) | 田種不多(114행) | 其山樵杻(114행) |
| 突厥兵盛(118행) | 其山並樵(119행) | |
| 衣着人風言音節氣並別(119행) | | 羊馬無數(122행) |
| 駝騾驢等甚多(122행) | 向南爲道路險惡(123행) | |
| 從茲已北惡業者多(123행) | 僧稍多於俗人也(134행) | |
| 衣著飲食人風與建馱羅國相似(134행) | | 節氣甚冷(135행) |
| 衣著言音與烏長國相似(136행) | | 衣着言音與建馱羅國相似(138행) |
| 暖而不寒(141행) | 其闕賓國冬天積雪, 爲此冷也(141행) | |
| 衣著言音食飲與吐火羅國大同少異(142행) | | 恰似火燒山也(146행) |
| 多於彼王(150행) | 衣着人風土地所出與闕賓王相似(150행) | |
| 言音各別(150행) | 兵馬強多(151행) | 人風大分與闕賓相似(154행) |
| 別異處多(154행) | 言音與諸國別(157행) | |
| 多分不同(157행) | 土地寒冷(159행) | 言音各別(164행) |
| 處所極窄(168행) | 爲此就彼(168행) | 此王兵馬強多(173행) |
| 衣着與波斯大寔相似(174행) | | 言音各別, 不同(175행) |
| 爲國狹小(176행) | 兵馬不多(176행) | 言音各別(184행) |
| 共漢地一箇大州相似(188행) | | 言音與諸國不同(192행) |
| 此胡蜜王兵馬少弱(198행) | 處所狹小(199행) | 百姓貧多(199행) |
| 土地極寒, 甚於餘國(200행) | | 言音與諸國不同(200행) |
| 所出羊牛極小, 不大(200행) | | 土地極寒(206행) |
| 言音各別(206행) | | |

우리가 찾은 《往五天竺國傳》의 형용사술어 구문들은 형용사술어 뒤에 목적어(NP)가 오는 '2개의 구문'을 제외하면, 모두 목적어가 없는 술어로 사용되었다.¹⁰⁾ 따라서 高田時雄(1992:205)의 주장처럼 '極荒林木'(7행), '極惡風

10) 형용사술어 뒤에 목적어가 있는 구문은 東近雪山(70행), 爲此就彼(168행)이다. 이 구문 중에서 東近雪山(70행)과 爲此就彼(168행)의 목적어는 장소를 나타낸다. 마치 현대중국어의 자동사 '去'의 뒤에 목적어(NP)가 위치하는 것과 같은 어순이다(我去北京.). 일반언

俗'(179행)은 오류구문이다.

3) 중간언어의 생성 이유

그렇다면, 왜 '極惡風俗'와 '極荒林木'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였을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極惡風俗'의 경우, '極惡風俗'을 호국 풍습에 대한 전제로 보고, 그 하위 항목으로 혼인풍습을 예로 들어 서술한 경우라면 옳은 문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極荒林木'의 경우, 그 문맥이 "極荒林木. 往彼禮拜者被犀牛大虫所損也. (산림과 나무들이 극히 황폐하였다.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자는 코뿔소와 호랑이의 해를 입기도 한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극히 황폐한 산림의 전제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高田時雄(1992)는 《往五天竺國傳》에 구두어 어휘와 서면어 어휘가 섞여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구두어 어휘는 전치사 '共...相似'가 있고, 서면어 어휘는 '與...相似'가 있으며, 특히 詩語가 많아 詩에 대한 愛着을 느낄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高田時雄(1992)는 "문체에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慧超의 문체를 평하였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체의 학습이 '極惡風俗'와 '極荒林木'와 같은 중간언어를 생성한 하나의 동기라고 생각한다. 첫째, 慧超는 唐나라 시기의 구두어로 중국인과 대화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往五天竺國傳》에 출현한 구두어 어휘에 접근해 볼 수 있다. 둘째, 慧超는 구두어뿐만 아니라 서면어 역시 학습하였을 것이다. 그가 학습한 서면어 문헌은 어떤 종류였을까? 그 서면어 문헌의 명확한 대상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 문헌 기록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려·조선시대에 상용된 중국어 학습서 《老乞大》를 살펴보면, 고려와 조선의 상인이 중국에서 물건을 팔고 돌아오면서 중국 물건을 들여왔는데, 그 속에 중국문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www.kci.go.kr

1) 更買些文書一部四書都是晦庵集註又買一部毛詩尙書周易禮記五子書韓文柳文東坡詩淵源詩學押韻君臣故事資治通鑑翰院新書標題小學貞觀政要三國志評話《古老乞大》

2) 更買些文書一部。四書都是晦庵集註。又買一部毛詩尙書周易禮記五子書韓文柳文東坡詩詩學大成押韻君臣故事資治通鑑翰院新書標題小學貞觀政要三國誌評話。《翻譯老乞大》

3) 更買些文書。一部四書都是晦庵集註。又買一部毛詩尙書周易禮記五子書。韓文柳文東坡詩詩學大成押韻君臣故事資治通鑑翰苑新書標題小學貞觀政要三國誌評話。《老乞大諺解》

4) 還要買書集幾部。四書却要是晦庵集註。再要買一部毛詩尙書。周易禮記。韓文柳文。東坡詩。詩學大成押韻部。資治通鑑。翰苑新書。標題小學。貞觀政要。三國誌。《老乞大新釋》

5) 還要買幾部書。四書是晦庵集註。毛詩尙書。周易禮記。韓文柳文。東坡詩。詩學全書韻書。資治通鑑。翰苑新書。標題小學。貞觀政要。三國誌。《重刊老乞大》

위 문헌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慧超 역시 四書·三經·禮記 등을 학습하였음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慧超가 접했던 중국문헌은 上古漢語에 속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사용한 서면어 역시 上古漢語의 문체를 모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上古漢語에서 ‘極惡風俗’과 ‘極荒林木’의 ‘惡’와 ‘荒’의 예문을 찾아보도록 하자.

多言多語，惡口惡舌，終日言惡。《春秋·兵法》

말이 많고, 입이 험악하여, 종일토록 악을 말한다.

蓄疑敗謀，怠忽荒政，不學牆面，莅事惟煩。《尙書》

게으름과 경솔함은 정사를 황폐하게 한다.

위 예문에서 ‘惡’은 관형어로 사용되어 ‘악랄한 말 / 악독한 언어’로 해석할 수 있다. 혹은 ‘多言多語’와 대구를 이루어 술어 ‘험악하다’로 해석 할 수 있다.

《尙書》의 ‘荒’은 타동사로 사용되었다. 上古漢語에서는 형용사가 술어로 사용될 때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益烈山澤而焚之。《孟子》

익이 산과 못에 큰 불을 내어 태웠다.

諸侯以公子賢，多客，不敢加兵謀魏十餘年。《史記·魏公子列傳》

제후들은 위공자가 현명하고 식객이 많은 까닭에, 10여 년간 감히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도모하지 못했다.

慧超가 살았던 唐나라의 近代漢語 문헌에서 ‘荒’과 ‘惡’의 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唯狂罔念，丘其糟而池其酒。勿內荒于色，勿外荒于禽，勿貴難得之貨，勿听亡國之音。《舊唐書》

안으로는 여색을 탐닉하고, 밖으로는 사냥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近代漢語 문헌에서, ‘악하다/극악하다’의 의미를 가진 ‘惡’이 ‘주어+술어+목적어’로 사용된 예문을 찾지 못했다. 대다수가 ‘주어+술어’의 구조로 사용되거나, ‘관형어+명사구’의 구조로 사용되었다. 반면 ‘惡’이 ‘증오하다/미워하다/싫어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술어+목적어’ 구조를 보였다. 따라서 ‘極惡風俗’의 ‘惡’과는 그 사용의미가 다르다. 《舊唐書》의 ‘荒’은 자동사로 사용되었다.

‘惡’와 ‘荒’의 자동사, 타동사 용법과 慧超와 高田時雄(1992)의 상황을 비교

하면 아래 표와 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 荒, 惡 | | 上古漢語 | 近代漢語 | 慧超 | 高田時雄(1992) |
|------|-----|------|------|-------------------|------------|
| | (1) | 자동사 | 자동사 | 오류 | 분석이 옳음 |
| | (2) | 자동사 | 타동사 | 이런 용례 없음 | |
| | (3) | 타동사 | 자동사 | 上古漢語 서면어 | 분석이 옳음 |
| | (4) | 타동사 | 타동사 | 이런 용례 없음 (詩語에 보임) | |

예를 들어, (1) ‘惡’와 ‘荒’이 上古漢語와 近代漢語에서 모두 자동사로 사용되었다면, 慧超의 ‘極惡風俗’과 ‘極荒林木’은 오류 문장이고, 高田時雄(1992)의 분석이 맞다. (2) ‘惡’와 ‘荒’이 上古漢語에서는 자동사용법으로 사용되고, 近代漢語에는 타동사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인데, 이런 용례는 없다. (3) ‘惡’와 ‘荒’이 上古漢語에서는 타동사용법으로 사용되고, 近代漢語에는 자동사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인데, ‘荒’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이 경우 慧超가 반드시 틀렸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어의 활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독특한 언어 표현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표현방법으로 現代漢語의 사용에 古代漢語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近代漢語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上古漢語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惡’와 ‘荒’이 上古漢語와 近代漢語에서 모두 타동사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인데, 高田時雄(1992)의 분석처럼 詩語에 ‘荒’의 타동사 용법이 보인다.

蘭蕙荒遺址, 榛蕪蔽舊壻。《全唐詩》

난과 향초가 옛 터를 황폐하게 하고,

덤불 어지러이 옛 교외(들판)를 뒤덮었네.

그러나 近代漢語의 산문에서는 목적어가 술어 ‘荒’ 뒤에 오지 않고, 전치사구가 온다.

主荒於上，臣蔽於下。 <藝文類>

임금은 위에서 황폐하고, 신하는 아래에서 가린다.

業精於勤，荒於嬉。 <進學解>

학업은 부지런함에서 정밀해지고, 노는 것에서 황폐해 진다.

따라서 詩文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惡'과 '荒'이 上古漢語와 近代漢語에서 모두 타동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의 분석을 정리해보면, 上古漢語에서 '惡'과 '荒'은 목적어 없이 형용사술어로만 사용된 구조와, 목적어와 함께 사용된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다. 近代漢語는 '惡'이 술어로 사용되었을 때 목적어와 함께 사용하지 않고, '荒'은 詩語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위 표에서 (3)의 경우에 속한다.

위의 언어현상을 제2언어습득(중간언어)의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모국어가 한국어인 중국어 학습자 慧超는 唐나라 시기 중국인들과 구두어를 통해 중국어를 학습하였지만, 서면어 문헌을 통해서도 중국어를 학습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글에는 唐나라 시기 구두어 문체인 近代漢語도 보이고, 서면어 문체의 上古漢語도 보이게 된 것이다. 慧超는 인도의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승려이다. 그의 서면어 문헌 학습은 오히려 구두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Selinker(1972)가 제시한 중간언어에 작용하는 5가지 주요 과정 가운데, 慧超의 《往五天竺國傳》에 보이는 '極惡風俗(179행), 極荒林木(7행)'과 같은 언어현상은 '이전의 학습 전략(previous learning strategies)'에서 온 '부정적 언어전이'에서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교실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문법 항목을 설명할 때, 교수는 하나의 학습 방법을 선택한다. 이 때 학생들이 교사의 해석을 잘못 이해하고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慧超의 중국어 역시 近代漢語를 학습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上古漢語의 문헌

을 접하게 됨으로써, 近代漢語의 서면어에 上古漢語의 서면어를 섞어 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중간언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5. 결론

우리는 이 글에서 高田時雄(1992)이 <慧超《往五天竺國傳》の言語と敦煌寫本の性格>에서 주장한 비문법적 구문 ‘女人在髮(113행)’과 ‘極荒林木(7행)’, ‘仕宦之類, 中天不殊(24-25행)’, ‘極惡風俗(179행)’을 재분석하였고, 오류가 발생한 이유를 Selinker(1972)가 제시한 중간언어 가설로 풀이하였다.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女人在髮(113행)은 ‘목표언어 패턴의 과도일반화’로 인한 ‘부정적 언어전이’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는 현대한어에서도 발견되는 중간언어 현상 중 하나이다. 우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仕宦之類, 中天不殊(24-25행)’은 오류문장이 아니다. 그리고 ‘極惡風俗(179행), 極荒林木(7행)’은 외국어의 ‘이전의 학습 전략’으로 인한 ‘부정적 언어전이’가 발생한 것이다.¹¹⁾

우리는 이 글에서 우리가 찾은 오류문장을 소개하지 않았다. 우리가 찾은 오류문장은 ‘不將隨身糧食(64행)’, ‘極多屠煞(124행)’ 등이 있다. 차후 지속적으로 오류문장을 분석하고, 오류문장이 발생한 이유를 외국어교육의 관점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1) 심사자의 의견처럼 ‘極惡風俗(179행), 極荒林木(7행)’의 중간언어 현상을 증명하기에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향후 우리는 모국어가 한국어인 저자의 한문 문장 속에서 高田時雄(1992)이 분석한 것 같이 왜 구어와 서면어가 한 작품 안에 혼재되어있는지, 왜 서로 다른 시대의 문체가 함께 공존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외국어교육의 중간언어이론으로 지속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參考文獻 >

- 박용진, <《往五天竺國傳》校勘(4)>, 《중국어문논역총간》 39호, 2016.
- 박용진·박병선·서진현, <《往五天竺國傳》校勘(5)>, 《중국어문논역총간》 40호, 2017.
- 高田時雄, <慧超《往五天竺國傳》の言語と敦煌寫本の性格>, 桑山正進(編), 《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2.
- Brown, H. D.,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rentice-Hall, 1980.
- Prator, Clifford, Hierarchy of Difficulty. Unpublished classroom l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67.
- Selinker, L.,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0:3, 1972.
- 國學大師(<http://www.guoxuedashi.com>)

< Abstract >

A Study of the Inter-language of 《Wang O Cheon Chuk Guk Jeon》

Park, Yongjin

In this article we reanalyzed the non-grammatical phrases - - that 高田時雄 (1992) claimed in the <慧超《往五天竺國傳》の言語と敦煌寫本の性格>, and explained the reason for the errors as an inter-language hypothesis by Selinker(1972) claimed.

To summarize the analysis, 女人在髮 was 'negative transfer' due to 'overgeneralization of L2 language patterns'. According to our analysis, 仕宦之類, 中天不殊 is not an error sentence. 極惡風俗, 極荒林木 was 'negative transfer' due to 'previous learning strategies'. We will continue to introduce the

inter-language sentences we have found.

Key words: L1-transfer, previous learning strategies, overgeneralization of L2 language patterns, interlanguage, Wang O Cheon Chuk Guk Jeon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 2019.02.08 | 2019.02.13 | 2019.02.17 | 2019.02.28 | 2019.03.31 |

